

# 2007년 등급판정결과 소 부문 우수상

## 화일목장 - 박석윤 농가

제주지역본부장 권기백

제주도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아래에 위치한 21세기 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범농장인 화일목장(대표 박석윤)은 2007년도에 소 등급판정결과 우수상 수상과 2006년도에는 농협이 선정한 전국 10대 깨끗한 목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, 전남대학교 축산대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.

### 특별한 사양관리

화일목장은 소와 매우 친화력이 돋보이는 목장이다. 자동차의 경적소리,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멀리서도 달려온다. 또한 목장 면적 30여 만 평에 20여 만 평은 자급사료(오차드그라스, 라이그라스)를 생산하고 10여 만 평은 비육우 150두, 번식우 100두로 한우 250여두의 방목지로 활용되고 있다. 특이한 것은 가임 암소들이 10여 개월 간 자연방목 상태에서 사육되며 동절기에도 방목지에서 건초와 농후사료가 급여됨으로써 경영비 절감을 하고 있다.

비육우에게는 출하 3개월 전부터 조이바이오 산삼연구소의 산삼배양액을 음수 첨가하여 육질 고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.

### 향후 추진계획

축산의 웅도 제주도와 함께 흑한우 실용화 사업에 참여하여 "우리 한우의 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하고 질 좋은 쇠고기 생산에 있는 힘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인이 되겠다"는 겸손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밝혔다.



◀ 익새꽃이 너울대는 방목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